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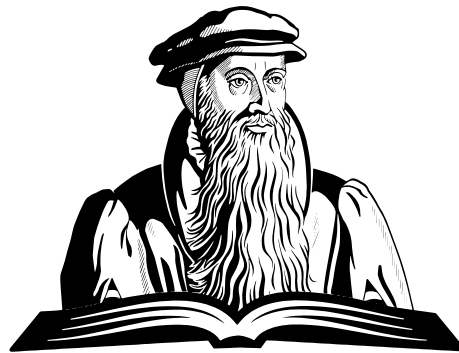
---

#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

## 강의 30: 영광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http://www.freechurchcontinuing.org)

# 학습단계

##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 구약 강의들

1. 소개
2. 창조
3. 타락
4. 노아
5. 아브라함
6. 족장 I
7. 족장 II
8. 출애굽
9. 시내산
10. 성막
11. 희생제물
12. 제사장
13. 유업
14. 다윗
15. 시편
16. 솔로몬
17. 성전
18. 왕국
19. 예언자
20. 포로기
21. 회복

###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23. 속죄
24. 부활
25. 오순절
26. 교회
27. 연합
28. 삶의 적용
29. 사명
30. 영광

# 강의 30

## 영광

### 강의 주제:

역사의 절정은 시작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의 완성을 통해 확대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제시합니다.

### 본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요한계시록 21:22-23).

## 강의 스크립트 30

아마 여러분은 인공위성에서 지구의 표면을 내려다보는 사진을 봤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눈에 대륙과 국가들과 대양의 큰 사진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신학을 전체로 보았고 구속사라는 풍경이 가진 모습을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는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있는 큰 조각들 가운데 몇 가지를 연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전개해 나가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성경 전체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약성경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성경 전체에 드러나고 있고 그분은 시간 속에서 하나의 은혜언약을 통해서 하나의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의 구원 방법을 제공합니다.

성경 전체의 모든 부분들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연속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진 본성은 무엇일까요? 왜 육신의 부활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불신자들의 정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까요? 최후의 심판은 어떤 것이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신자의 구속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특별히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마지막 강의에서 우리는 모든 역사의 마지막과 절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우리가 전체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과거에 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미래에 대해서 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구속사에서 있을 마지막 위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책이 성경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 있는 핵심적인 연결점을 한데 모아두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진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책은 다니엘서에서 멈춘 것을 다시 연결해주고 있으며 사도 요한의 시대와 마지막 때를 연결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후의 날입니다. 자연인은 아무리 대단한 과학적 수단과 지적 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미래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예언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아십니다. 고린도전서2:9-10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이 시대의 결론 지점인 마지막 때로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루 하루를 보내고 또 긴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지막 날 곧 그 너머는 지금 세상은 알 수 없는 더 이상은 날이 없는 마지막 날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예고하는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이어서 두 번째이자 최종적인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14:3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승천하실 때, 천사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을 다시 한 번 확신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1:11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서신서에도 이에 대한 수많은 언급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재림은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고 난 다음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신약성경이 재림과 관련하여 먼저 성취되어야 할 것으로 말하는 것을 다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요약하여 몇 가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도행전1:11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돌아오실 것을 압니다. 또한 그분께서 육체적으로 재림하실 것도 압니다. 요한계시록2:20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게 오실 것입니다. 많은 성경본문에서 이를 말하지만 특히 요한계시록1:7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재림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4:16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재림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전천년주의자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재림 이후에 세 번째 재림이 있어서 그 사이에 다른 사건들이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15:22-24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재림과 동시에 두 개의 대단한 사건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최후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구약성경은 미래의 육신적인 부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사두개인들의 오류에 대하여 이 진리를 변호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넘쳐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린도전서15장입니다. 이 부활은 육신적인 몸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8:11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24:15에서 말하듯이 이 부활은 의로운자와 불의한자의 모두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불신자는 정죄의 부활으로 신자는 영광의 부활으로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전체 인격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 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부활이 없으면 그들의 구원은 불완전합니다. 소요리문답38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때에 영광 가운데 일으킴을 받는 신자들은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방면 될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미하 즐기는 완전히 복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일어나셨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도 역시 영광으로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마지막 날은 또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은 즉시 모든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귀와 영광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2:9-11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 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있는 많은 본문들이 모두 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심판주 가 되실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심판석 앞으로 부를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4:1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 있 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합니 다. 모든 인류는 그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5:10은 이에 대해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 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심판 의 결과도 역시 성경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불의 연못으로 던 져지고 모든 위로를 빼앗기며 끝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정의로운 진노 아래서 몸과 영혼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의 마지막 상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임재 속에 있게 될 것입 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매주 누리는 안식일은 하늘에서의 영원한 안식일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은 히 브리서4:9에 나오는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안식이라는 이 단 어는 이를 둘러싼 구절에 있는 안식이라는 단어와 헬라어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 면 안식일 준수를 의미합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혹은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가 됩니다. 이 사실은 은혜언약의 절정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로 많이 들었던 언약의 약속이 요한계시록21:2,3에 나온다는 사실을 눈여겨 보세요. “또 내 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잘 들어보세요. “하 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사실은 우리를 신자 에게 속한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이 요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신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도대체 그게 뭡가요? 우리 시대를 살아 가는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하늘에 있는 놀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즐거움을 최고 의 수준으로 만끽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로 보잘 것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는 자 신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집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 람들의 구원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적들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고 그리스도의 구 속받은 신부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원한 즐거움이며 그리스도의 상급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부들은 이에 대하여 겸손 하게 참여합니다. 바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천국의 영광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신학자들이 가장 황홀한 장면 혹은 하나님을 보는 복되고 행복한 순 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17:15에서 이를 노래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 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타락할 때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자들 은 영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17:24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기도는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 셴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지만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을 직접 볼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는 것입니다.

17세기 잉글랜드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맨튼은, “우리는 어린양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혹은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천국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욥조차도 그리스도를 보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기 19:25-27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의 모든 공간을 다 채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21:22,23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증거합니다. 이를 통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즐거움과 최대의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대적을 멸망시키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19:1-7에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몇 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조금 후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사실은 피조물은 영혼에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없고 그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도 이 사실을 압니다. 이 어린이들은 아마도 간절한 마음으로 장난감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이에 대해서 꿈을 꾸입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마침내 장난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흥분되어 있습니다. 첫째날에는 정말로 즐거웠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날도 계속 즐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나고 나면 기쁨은 조금씩 줄어들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나면 그 장난감은 다른 장난감들과 같이 버려져 있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장난감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해당되는 이것은 모든 어른들에게도 역시 해당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궁극적으로 갈망한다면 결코 그것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편16:11과 같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로 인해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복의 비전(the beatific vision of God) 이 성도들의 궁극적 행복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잠깐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엄청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인간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매우 제한된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보고 알아야 하는 것을 결코 다 소화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볼 때마다 항상 새롭고 진정으로 신선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보는 것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점점 증가됨과 동시에 신자의 능력도 함께 영원토록 확장될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말에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들이 기쁨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물을 한 잔 가진 다음에 그 물을 여러분의 입으로 마셔서 물이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저 넓디 넓은 대양으로 나가서 그 대양에 뛰어드는 것을 비교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 그 분 자신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신자들에게 이미 계시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은 짐을 나서면서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 오른쪽으로 갈지 아니면 왼쪽으로 갈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교차로를 만날 때마

다 그 목적지에 따라서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직진해서 가야할까? 아니면 오른쪽? 아니면 왼쪽? 여행의 종착지를 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가지고 계시는 구속계획에도 해당됩니다. 요한일서3:2,3은,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신자의 목적지에 따라 그가 매일 하는 행동이 결정됩니다. 모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11:24-26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므로 지금 순례의 길을 걷어가는 신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히12:2)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울은 골로새서3:2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막에서 나올 때 빛났던 모세의 얼굴과 같이 사도행전7장에서 스테반도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 모습을 구경하던 이들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단순히 아름다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정의 (definition)이시며 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신자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변화되 아름답게 변합니다. 이미 고린도후서3:18에서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제공하시는 계시를 통해서 그 분을 봅니다.

천국에 대한 이런 지식은 고난에 대한 신자의 관점마저도 바꿉니다. 로마서8:18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가올 영광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세상의 고난을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신자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떤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비가 오는 것쯤은 신경쓰지 않는다” 고린도후서4:17,18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언가를 분명하게 보는 여행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보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믿는 것과 보는 것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보도록 합니다. 신자들은 이 영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역사는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첫 번째 서론적 강의에서, 우리는 열왕기상10장에 나오는 솔로몬왕과 시바의 여왕 사이에 있었던 인터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솔로몬과 그의 왕국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연결시키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강의에서 여러분은 바로 이 연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시바의 여왕이 자신이 보았던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그의 왕국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부유함과 여호와와 그의 집을 생각했을 때 성경은 그녀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여왕은 “내가 시바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들은 것은 이것들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신자들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신자가 영광 중에 천국에 도착해서 솔로몬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볼 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내 숨을 멎게 합니다”라고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셀 수 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내가 아는 것이 이 모든 것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 넘을 것이며 우리의 모든 갈망을 완전히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는 지금 성경신학에 대한 이번 과정에 포함된 모든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떠나는 여행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구속사를 탐구했고 이 중요한 주제의 작은 부분만을 선택하여 보았을 뿐입니다. 이번 과정이 처음 시작할 때 말했듯이 이 과정의 목적은 개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강의들은 여행을 나서는 집의 문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도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더 보아야 하고, 더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큰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과 에너지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특권을 누리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좌 아래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가 가져다주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듯이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고 미래에 올 것입니다.